

전남도 산하기관 ‘혁신의지’ 없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부분 하락... 개선안은 나몰라라 내놓은 방안도 ‘짜집기’ 수준 고강도 쇄신책 시급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지난해 경영평가가 대부분 뒷걸음질 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조차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산하 출연기관 13곳에 대한 '2017년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출연기관 경영실적과 기관장 성과계약으로 이뤄졌고, 경영실적 평가에서 신용보증재단, 여성플라자, 환경산업진흥원 등이 '나' 등급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다' 등급, 문화관광재단, 순천의료원이 '라' 등급, 청소년미래재단, 복지재단, 강진의료원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에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이 '우수' 등급을,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플라자 등이 '보통' 등급, 청소년미래재단, 테크노파크, 순천의료원이 '미흡' 등급, 강진의료원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출연기관 대부분의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고, 전남도는 성과급과 출연금 차등 지급 등 페널티와 함께 지난 8월까지 기관별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출연기관들이 자체 마련한 경쟁력 강화 방안 대부분이 '누 가리고 아웅' 식에 그치거나 전년도 이행계획을 짜집기한 수준에 그치면서 혁신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구성원 간 갈등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가 분야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강진의료원은 사실상 경영 개선을 포기했다. 강진의료원은 올해 개선안으로 ▲이해관계자 유형분류와 이에 따른 점진 관리 방안 마련 ▲직무 분석과 기관특성을 반영한 NCS 체계 도입 및 활용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강진의료원은 그러나 이해 관계자 점

점 관리는 관리 전문인력 부재로, NCS 체계는 직무개념 불명확, 직무분석·평가 과정의 어려움, 연공서열 중심 문화, 직무별 시장임금 벤치마킹 어려움, 직무 유지보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입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스스로 내렸다.

남품비리와 계약특혜 등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순천의료원 역시 ▲의료원 역량모델 개발·적용 등 경쟁력 강화 ▲인력운영 계획 수립 등 시능만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자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테크노파크도 ▲고객만족경영 기본계획 수립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 도출 등 두루물술한 이행계획을 내놨다.

채용비리와 직원 갈등 등으로 경영실적 최하등급을 받은 전남복지재단의 경우 ▲시·군 협력체계 강화와 신규정책 협업과제 개발 ▲인력·역량·직무 분석 ▲각 사업별 환류체계 점검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을 개선책을 내놨다.

복지재단은 지난해에도 ▲경영평가 실적회의의 기능 강화 ▲핵심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확립 ▲단위 사업별 환류방안 정비 ▲감사담당자 지정 등 올해와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시능만 내는데 그쳤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추행과 채용비리 등으로 감점을 받은 문화관광재단도 ▲재단윤리경영위원회 개최 및 윤리위원 역할 강화 ▲청렴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 지난해와 동일(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직원윤리·청렴교육 확대)한 이행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기관들 역시 직무역량 강화, 고객만족, 시군 협업과제 발굴, 인사활성화, 성과지표 개발, 노사상생 등 기존 업무를 나열하거나 지난해와 유사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산하기관 혁신을 위한 전남도의 강력한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여수·무안공항 5년 연속 '적자' 지난해 총 294억 규모 경영악화 심각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광주와 여수, 무안 등 10개의 공항이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해 무안공항 적자액이 139억900만원으로 전국 공항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의원이 15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공항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광주·여수·무안·울산·경주·양양·사천·포항·군산·원주 공항이 최근 5년

지방공항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광주공항	여수공항	무안공항
2013	-2,504	-8,821	-7,624
2014	-2,296	-9,374	-7,808
2015	-3,057	-11,342	-8,967
2016	-3,237	-12,246	-12,415
2017	-2,745	-12,825	-13,909

간 심각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흑자를 본 공항은 단 4곳으로,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이 이에 해당된다.

광주·여수·무안·울산·양양·사천·포항·군산·원주 공항은 5년 내내 적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 2013년 대비 2017년의 적자 규모도 더욱 커져 경영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공항은 27억4,500만원, 여수공항은 128억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적자가 가장 큰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2017년 한 해 무려 139억 9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은 "지방공항이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공항 역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수능 합격 간절한 기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15일 오전 광주 무각사에서 불자들이 수능에서 자녀들이 고득점과 합격을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부동산 경매시장 뜨겁다

평균 응찰자 수 매년 증가... 일부 감정가 두배 낙찰

광주·전남지역 주택 경매시장이 뜨겁다. ▶관련기사 2면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마다 '평균 경쟁률 20:1'을 넘어서는 한편, 일부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낙찰됐다. 15일 법원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이 배포한 월간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97건으로, 이 중 2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1.2% 포인트 상승한 108.0%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1월(101.7%) 이후 11개월 만에 100%를 넘긴 수치다.

또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대비 1.6명

증가한 8.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년 동기 평균 응찰자 수(5.3명)와 비교해 보면 3.6명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광주지역 주택 경매시장에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 37:1, 낙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150%를 넘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주거시설 경매시장에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업무·상업시설 경매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25.3% 상승한 78.1%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적인 경매시장 분위기는

정부의 '9·13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건 수는 8,341건이며 3,018건이 낙찰됐다.

2001년 1월 이래 3번째로 적은 진행 건수다. 낙찰건수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낙찰건수 감소 이유는 전반적인 진행건수의 감소와 반복되는 유찰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9월 경매시장은 진행건수와 낙찰건수까지 줄어든 상황이다"며 "일부 상업시설 부동산 매물은 특수권리관계가 얽혀있어 향후 재조한 낙찰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영민 기자

제15회 푸른광주의 날 기념 www.greengj21.or.kr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선포식

지속가능한 광주는 어떻게 만들까요?

2015년 9월 유엔은 우리 공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와 지역이 이 목표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우리 광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광주 이행을 위한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선포와 함께,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시민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10. 18(목) 14:00~17:30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대상 : 광주시민, 행정 및 유관기관, 기업,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So시민들과
Do다함께 만드는
Go지속가능한 광주

13:30~14: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00~16:00 시민 원탁회의
16:00~17:00 광주 SDGs 2030 목표·지표 선포식

참여문의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Tel.062-613-4170~8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Tel.062-613-4122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북, 철도·도로 연결한다

고위급회담서 합의... 11월말~12월초 착공식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북평화회담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정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북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복구구간 현

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와 북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